

밸류업이 달군 증시...광주·전남 주식거래 활발

지난달 주식거래대금 9조 5971억원...전월 대비 1조 3470억·16.3% ↑ AI·반도체주 중심 매수세 이어져...간암 치료제 개발 HLB 관심 집중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등 주식 시장 전반에서 전월보다 매수·매도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4년 3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9조 5971억원으로 전월(8조 2501억원) 대비 1조 3470억원(16.3%) 늘었다.

코스피 매도거래대금 역시 전월(2조 1089억원)보다 3403억원(16.17%) 올라 2조 444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코스피 장에서 월초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앞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14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2년 만에 2700선을 돌파한 2718.76p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 장에서는 지난달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총 0.75%p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AI·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2조 4131억원으로 전월(2조 1530억원) 대비 2601억원(12.08%) 올랐다.

코스닥 매도거래대금은 전월(2조 929억원)에 견줘 3116억원(14.89%) 오른 2조 4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삼성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3월 광주·전남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보면 코스피에서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를 총 6912억원(매수 2963억원·매도 3949억원) 거래했다.

이어 한미반도체(매수 1070억원·매도 1157억원)와 SK 하이닉스(매수 1068억원·매도 1174억원)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지역 기업인 기아 역시 471억원 매수됐고, 425억 매도돼 상위 10종목 내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차지했던 이차전지 관련 주들이 뒤로 밀려났다.

지난달 지역민의 코스닥 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HLB로, 간암 1차 치료제로 이름높은 '리보세라' 등 항암 신약에 대한 글로벌 특허권을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면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은 HLB 주식을 2877억원(매수 1393억원·매도 1484억원) 사고 팔았다. 이어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레고캠바이오 등 바이오·의료 주식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예코프로 등 이차전지주들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시총)은 22조 8166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9928억원(8.73%)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시총 규모는 178억원(0.98%) 증가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시총은 전월 대비 2조 106억원(9.57%) 줄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시총이 전월보다 1조 7974억원(11.29%)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받는다

소득요건 600만원 상향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올해 첫 아파트매매지수 보합 전환

목포·무안 중심 상승

올들어 줄곧 감소세를 거듭하던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1주(4월1일 기준) 전남의 아파트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남의 아파트매매가격은 1월 1주차 -0.05%

시작으로 3월 4주차까지 하락하면서 누적 -0.31%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 처음으로 하락을 면했다.

전남은 목포와 무안이 전(前)주보다 각각 0.08%, 0.07% 상승하면서 보합세를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양은 보합, 순천과 나주, 여수는 각각 -0.02%, -0.04%, -0.07%를 기록했다.

전국 8개도 중 전남과 경북(보합)을 제외한 6개 도는 아파트매매가격이 하락했다.

2주 연속 보합세였던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아파트전세가격은 2주 연속 상승했다. 전주 0.02% 상승했던 전남의 전세가격은 이번 주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0.01% 하락했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0.0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달리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면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치솟는 금값, 온스당 2300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3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섰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금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금을 찾는 수요도 있다.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제품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미 국제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면서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향기 물씬 두릅 맛보세요" 4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분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봄 제철 식재료인 두릅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봄을 맞아 두릅과 달래, 냉이, 미나리 등 봄철 식재료를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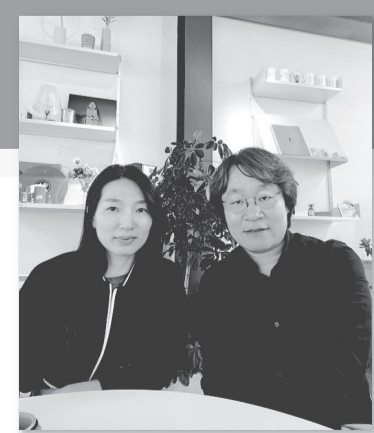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